# 의료취약국가에 선진 의술을 심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가 몽골 북부권역암센터에서 호흡기질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 이념은 국경을 넘어서 의료취약국가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9년부터 15개국에서 60회의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하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 단기적 의료 지원을 넘어 아시아와 중동 등 전 세계 의료 소외 지역에 선진 의료 시스템을 전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해외 의학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의료진이 자국으로 돌아가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을 성공하는 등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 현지 맞춤형 협력으로 의료 자립 이끌어

서울아산병원은 의료취약국가를 찾아가 의료봉사와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현지 의료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자립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인 아시아(Asan-in-Asia)' 프로젝트를 통해 몽골, 베트남 등에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의료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8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몽골 에르데네트에 위치한 북부권역암센터를 찾아 나흘간 75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에르데네트는 광산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많고 암 발생률이 높지만 전문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현지 의료진과 함께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진행하며 치료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암 치료와 간호 강의, 중환자실 운영 자문을 실시했다. 에르데네트에서 진료를 마친 뒤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아가페병원, 몽골 국립제1병원 등 현지 의료기관들과 중증환자 초청 진료와 의료진 연수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몽골 북부권역암센터에서 나흘간 75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외과 성태연 교수(왼쪽 두 번째)가 쿠웨이트에서 고난도 갑상선 재발 환자 수술법을 전수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연수를 받은 인도네시아 의료진이 6월 초 인도네시아 최초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서울아산병원과 몽골 의료협력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 2010년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제1병원에 생체간이식 의술을 전수했고, 300명이 넘는 몽골 환자가 생체간이식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2025년 12월까지 255명의 몽골 의료진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간이식 기술 전수와 의료협력을 이어왔다.

## 고난도 로봇수술 전수 등 중동 의료발전에 기여

중동 쿠웨이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2025년 12월 쿠웨이트 현지에서 최초로 내분비질환 로봇 수술을 시행하며 고난도 로봇 갑상선 수술법을 전수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총 3일간 로봇을 이용한 고난도 갑상선 수술 5건을 시행했고, 현지 의료진 40여 명이 참관해 술기를 전수 받았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쿠웨이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현지 의료 발전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

쿠웨이트 외에도 서울아산병원은 중동 국가들과 진료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 10년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에서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 3만 5천명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에는 통합형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해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수출할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로봇 신장이식 술기·시스템 전수

2026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최초 로봇 신장이식 수술이 성공을 거뒀다. 수술을 성공시킨 실로암병원은 지금까지 450례 이상의 개복 신장이식을 진행해온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으로, 일찍부터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은 로봇 신장이식 수술의 장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로봇 신장이식 수술 도입을 위해 2023년 서울아산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0년 로봇 신장이식 수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2023년 당시 100례 이상을 시행하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다. 실로암병원은 비뇨의학과 의료진 6명을 서울아산병원으로 보내 로봇 신장이식의 전 과정을 배우도록 했다. 연수를 받은 의료진은 서울아산병원의 앞선 술기와 감염 관리 프로토콜까지 체득해 자국 의료진으로 로봇 신장이식 수술을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아산병원의 앞선 의료기술과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의료취약국가의 의료 자립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글 **편집부**